

충청지역 일요일영업점, 천안역지점!



일요일 정오, 영업점 대기인원 70여 명. 지난해 11월 충청지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금융 거래 애로 해소를 위해 일요일영업을 시작한 천안역지점은 일요일이 가장 바쁩니다. 직장 때문에 은행을 찾기 힘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요일에 주로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충청지역 유일한 일요일영업 점포라 먼 거리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천안역지점은 충청 지역에서 최초로 일요일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기존 외국인 손님이 다른 지역의 일요일 영업점을 찾아가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천안, 아산 등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천안역지점 일요일 영업을 통해 해외송금, 환전, 급여통장 및 송금전용통장(easy-one) 신규, 전자금융 가입 등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16개 영업점과 2개 일요일송금센터 등 국내은행 중 제일 많은 일요일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손님들과의 소통으로 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점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